

2024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 심의평 (협력사업자 분야)

2024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 <협력사업자> 분야 심의는 행정심의, 서류심의 및 인터뷰 심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모에 지원한 협력사업자 18 곳 중 행정심의회와 서류심의를 통과한 11곳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의가 이뤄졌으며, 최종 결과 6곳의 협력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참석하신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경기도 작가의 발굴과 시장 진출이라는 공모의 목적에 부합한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활동의 전문성과 기획의 참신함, 개성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참여 작가들의 만족도와 과거 판매 성과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해외 진출부터 지역 문화 활성화까지 다양했으며, 컬렉팅 결과에 대한 연계보다 기획력 위주의 행사가 많았습니다. 사전 홍보나 판매, 인근 갤러리와의 협업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기존 컬렉터 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미술장터, 팝업갤러리를 기획한 분들은 기획력에 비해 판매 방안에 대한 고려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외 아트페어 참가의 경우, 해당 도시 컬렉터들의 컬렉션 성향을 파악하고, 현지에 파트너를 두지 않으면 판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 해외 사업 지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협력사들의 경우 기획력의 참신함이나 아트경기와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판매 방안면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올해는 경기문화재단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아트경기’가 5년 차를 넘기며 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시기임을 인식하고, 그 역할과 명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내외 미술시장이 2021~2022년의 호황기를 지낸 후 경기변동의 흐름 속에서 작년과 올해 ‘조정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임을 자각하고 이 점을 고려해 심의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업의 목적이 ‘미술품 활성화’에 있고, 경기도 예술인을 대상으로 선정한 ‘아트경기 작가’들의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지원의 역할도 중요한 바 전시기획력이 우수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유통 활로 개척과 판매 촉진 방안 등의 사업계획안을 유심히 심사했습니다. 또한 미술장터와 아트경기 아트페어 등은 아트경기 참여 작가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아트경기’ 프로그램 자체의 브랜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애썼습니다.

어려운 미술시장에서 올해 선정된 협력사와 참여 예술가들이 새로운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자립적인 예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 3. 11.

심의위원장

조상민

(서명)

심의위원

이태지

(서명)

심의위원

이태지

(서명)